

즐거운 여름성경학교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아동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열려 어린이들이 '영'이라는 주제를 마음으로 느끼고 체험했다.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면 자신에게 해로운 것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축복으로 갚아 주신다.

“주님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아름다운 찬양과 공연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제5회 만민아동 예술제에 참가한 수상자들 가운데 특별한 간증을 들어본다.

북미 지교회 수련회

북미 지역 지교회 선교사들과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된 축복의 현장, 북미 지교회 연합 수련회를 소개한다.

만민뉴스

제544호 2012년 8월 5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영이신 하나님 마음, 닮고 싶어요!”

어린이들의 천국잔치 '2012 아동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열려



만민의 미래인 아동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2012 여름성경학교'는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시간이었다. 지도교사와 부장, 교사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영이신 하나님 마음이 더욱 가까이 느껴졌고, 영의 마음을 이루는 과정이 행복한 일임을 알았다.

아동주일학교(교장 장성식 목사) 여름성경학교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4일간 우리 교회에서 열렸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GCN 방송(www.gcn.org) 생중계를 통해 전국 및 전 세계의 성도들이 시청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는 물론 원주, 경주, 구미, 동광주, 무안, 춘천, 안성, 서산, 통영, 포항 등 전국 지교회에서 함께했다.

첫째 날 '개강예배'에서 감사 신동초 목사는 '영'(잠 4:23)이라는 제목으로 영의 마음은 첫째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며, 둘째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동일한 모습이므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임을 예화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둘째 날 오전 '말씀과 기도' 시간에는 이수진 목사가 '욕심을 버리자'(약 1:1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갖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등 욕심을 버리면 서로 나누고 베풀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아름다운 영의 마음을 이룰 수 있다고 전했다.

오후에는 '학년별 행사'가 있어 공과 및 장기자랑, 천로역정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다. 무안만민교회 손우림 자매(초등 4)는 "저희 학년은 영의 세계에 대해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지옥은 정말 싫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곳이었어요. 반대로 천국은 너무 좋아서 영

원토록 살고 싶다고 느꼈어요."라고 했다.

셋째 날 오전, '제5회 만민아동 예술제'는 만민 아동 고적대와 무안만민교회 엔젤 워십팀의 힘찬 오프닝 공연 후 강주은, 김다연 어린이의 사회로 진행됐다. 독창과 듀엣은 물론, 합창, 무용, 태권무, 트럼펫 연주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였다.

대상은 국악 솔로로 영광 돌린 구나영 어린이, 금상은 신하은 어린이, 은상은 아름다운 무용을 선보인 '주향 선교단', 동상은 힘찬 태권무를 보여준 '권능 주니어' 팀에게 돌아갔다. '할렐루야 브라스 밴드'의 트럼펫 5중주가 인기를 받았으며, 이 외에도 열매상, 무지

개상, 축복상, 오로라상, 새렘상이 주어졌다.

이날 오후, '파워지저스'에서는 이희선 목사가 생활 속에서 영의 마음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전한 뒤 회개 시간을 가졌다. 이어 천국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총명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마지막 날인 8월 1일 오전에는 만민기도원 이복남 원장의 인도로 '성령충만기도회'가 있었다. 이 원장은 영의 마음과 육의 마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며 찬양과 기도, 십자가와 진주문 체험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후에는 골든벨, 암송대회 등 '학년별 행사'가 진행됐다.

한편 예배 시마다 예능부 소속

교사와 어린이들의 총명한 준비찬양이 있었으며, 주교사들은 더운 날씨에도 은혜롭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도교사와 부장들도 분야분야를 살피며 도움의 손길을 주었다.

또한 성도들과 학부모들은 보조교사와 예배 안내로, 식사 봉사

와 지교회 어린이들이 사용한 숙소 청소로 사랑의 손길을 모았다. 학부모들은 하나님 은혜로 성장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해했다. 교사연합회 부회장 염유순 집사는 "감사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풍성하게 준비한 영의 양식을 통해 아이들이 착하고 예쁜 영의 마음을 이뤄가고 있어요."라며 감사해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사사기 11:30~31)

사람이 살다보면 약속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만일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상대에게 큰 피해를 주기도 하고 신뢰가 깨어지는 등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지요. 하지만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과의 만남이 약속돼 있는데 아무 말도 없이 약속을 어기거나 “급한 일이 있어 10분만 늦겠습니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천지만물의 창조주이며 주관자이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거나 일방적으로 바꾼다면 심히 무례한 일이지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면 자신에게 해로운 것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시지요. 성경에 나오는 입단을 통해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입단의 서원기도를 들으시고 신속히 응답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젃과 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의 일입니다.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급

속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사들이 통치했는데 그중에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얻은 아들입니다. 길르앗 아내의 아들들은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하며 입다를 내쫓았지요. 이에 입다는 형제들을 피해 돛 땅에 거하며 큰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얼마 후,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의 침략을 받아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를 찾아가 자신들의 장관이 돼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결국 입다는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돼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께 서원기도를 하지요.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해 주시면 가장 먼저 자신을 영접 나온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입다의 간절한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암몬 자손을 입다 손에 붙이셨지요.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이십 성읍을 치고도 또 아벨 그라뎀까지 크게 도륙하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삿 11:32~33). 하나님께서는 입다의 중심을 아셨기에 그가 서원을 지킬 것을 아시고 큰 응답으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2. 하나님과의 약속을 사랑하는 자녀보다 귀히 여긴 입다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집에 이르렀을 때, 그를 맨 처음 맞이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종이나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승전보를 듣고 너무 기뻐서 소고 잡고 춤추며 나와 영접한 것입니다. 이것을 본 입다는 옷을 찢으며 슬퍼했지요.

그러나 아무리 무남독녀라 해도 한 번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입다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지요. 그의 딸 역시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

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며 서원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끔찍한 서원을 받으셨을까?’ 하며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원하시거나 입다에게 그런 서원을 요구하신 적도 없습니다. 다만 입다가 전쟁을 앞두고 급박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서원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미리 수양을 준비하셔서 이삭이 죽지 않도록 해 주셨지요. 그러면 왜 입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입다의 입장에서서는 하나님에 없는 자녀를 번제로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자신이 죽는 것이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사랑하는 자녀보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을 더 귀하게 여겼기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3. 서원기도를 할 때 주의할 점과 이행의 중요성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급하거나 절박하다고 함부로 약속이나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8:21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했지요. 설령 서원이 아니더라도 함부로 말을 내는 일이 없어야 하며 이미 하나님과 약속했다면 크든 작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신명기 23:21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네게 죄라” 하시며, 서원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0:2에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도 번제로, 즉 짐승처럼 잡아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가른 후 불에 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입다의 중심을 아셨기에 그의 서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자신에게 해로운 지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킬 중심임을 아셨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약속은 물론, 믿음의 형제나 세상 사람과의 약속, 혹은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신지요?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에 거짓과 간사함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과 사랑을 받기 마련입니다.

4. 약속 이행에 따르는 하나님 축복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설령 서원한 것이 지키기 어렵더라도 마음에 결심하고 신속히 지켜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더디 행하면 그만큼 축복도 더딘 것을 봅니다. 그나마 서원해 놓고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담이 되니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욕심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즉흥적으로 서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러면 “아예 서원이나 약속을 하지 않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요?”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해 믿음의 행함을 내보인다면 뜨겁게 마음에 주관자가 온다면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성령께서 마음에 예물을 열마 심으라고 주관해 주시는데 ‘형편이 더 나아지면 하자.’ 하고 이를 무시한다면 영적 성장은 물론 축복의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음성인지, 나의 욕심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어떤 상황에도 핑계 대지 않고 서원과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자유의지 가운데 결심하거나 서원하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사랑과 축복을 마음껏 받아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버스 (교회 차량 / ☎ 02) 818-7391~5)
주일·금요일야 각 지역별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번 출구) /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 도보 10분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 651, 5528, 504, 643, 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 / 551, 150, 505, 507, 5531, 5534, 5601, 5616, 5617, 5620, 5621, 5623, 5624, 5625, 5627, 5633, 5713, 6512, 6635, 금천06 / 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성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대학·가나안·청년·바울·마리아]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월요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간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간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제5회 만민아동예술제 수상자들이 들려주는 ‘내가 만난 주님 사랑’

지난 7월 31일 우리 교회 본당에서는 ‘2012 아동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 중 하나인 제5회 만민아동예술제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찬양, 연주, 워십, 율동, 무용, 태권무 등 다양한 장르에서 발군의 기량을 선보여 장내를 깜짝 놀라게 했다. 수상자들 가운데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간증을 들어본다.



**“전 세계를 다니며
주님을 전하고 싶어요”**



구나영 자매
(만민중앙교회, 초등 5학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소망이 있어요”**



신하은 자매
(만민중앙교회, 초등 5학년)



**“천국 놀이동산을
생각하니 행복해요”**



이정운 형제
(만민중앙교회, 초등 6학년)



**“치료하시고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해요”**



류누리 자매
(동광주만민교회, 초등 5학년)

이번 만민아동예술제에서 저는 국악 찬양을 불러 대상을 받았어요. 매일 잠자기 전, 연습하기 전에 “대상을 꼭 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예쁜 말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연습했어요.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서울특별시 치과의사회가 주최한 ‘다문화(새터민) 가정과 함께하는 2012 치아의 날 행사’에서 저는 건치대상을 받았어요. 특별히 치아를 관리하지 않았는데도 치아가 건강한 것은 당회장님 기도로 바닷가의 잔물이 단물로 변한 ‘무안단물’(출 15:25) 덕분인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 물 마시기를 즐겨했고, 아기 때는 엄마가 분유에 타서 먹이셨대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꿈은 UN 사무총장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니며 많은 사람에게 주님을 전하고, 우리 교회와 당회장님을 알리고 싶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 영어, 일본어도 배우고 컴퓨터 자격증, 한자와 역사 자격증도 준비하고 있어요. 더욱 열심히 공부하는 나영이가 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찬양을 좋아했습니다. 많은 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곤 했어요. 그때 교회 행사에서 아름답게 찬양하는 분들을 보면서 저도 찬양사역에 대한 꿈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이번 만민아동예술제를 준비하게 됐는데, 실력 있는 팀들이 참가해 저는 예선 통과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금상을 수상해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모태신앙으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만민중앙교회에 다닌 저는 당회장님께서 아프신 분들을 치료하시는 권능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 계시고 좋으신 분이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는 일이 있었어요.

저학년 때 턱 장애가 있었는데, 작년 6월 특별 은사집회 때 당회장님께 안수기도를 받고 그 증상이 사라진 거예요. 입술에 염증이 생겨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할 때에도, 실수로 다쳐 귀가 찢어졌을 때에도 당회장님 기도를 받고 무안단물을 뿌린 뒤 치료받았어요.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하나님 사랑을 느껴요. 찬양으로 이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학교에서 예술 영재로 선발돼 성악, 판소리, 연극 등을 배우고 있어요. 이번 만민아동예술제에 동생 기쁨이와 함께 참가해 ‘놀이동산’ 곡을 찬양하며 율동했는데 오로라상을 받았어요. 은혜로운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니 천국 놀이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즐겁게 지내는 장면이 연상돼 행복했어요.

저는 욕심이 많아서 동생 것을 잘 빼먹었는데, 여름성경학교에서 이수진 목사의 ‘욕심을 버리라’는 설교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번엔 꼭 노력하고 실천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제겐 특별한 간증이 있어요. 2008년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가 많이 다치고 다리뼈가 부러졌어요. 의사 선생님은 수술하지 않으면 다리를 절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제 대신 당회장님께 엑스레이 사진 위에 기도를 받으신 뒤 깨끗이 치료받았어요.

이러한 주님 은혜를 늘 생각하고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번 만민아동예술제를 준비하면서 그 사랑이 더욱 마음에 느껴져 감사했습니다.

저는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엄마처럼 찬양하고 싶었어요. 엄마는 동광주만민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번 만민아동예술제를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했어요. 율동하는 교회 동생 세명과 무지개 팀으로 참가했는데, 축복상을 받게 돼서 감사해요.

저는 어릴 때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무척 고생을 했어요. 자고 나면 잠옷에 피가 군데군데 묻어 있었고,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해 한여름에도 반바지나 짧은 소매 옷은 못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당회장님 기도를 통해 깨끗이 치료받았어요.

또 무서운 꿈을 자주 꾸다보니 잠을 자는 것이 두려워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희선 목사님께서 귀신은 무서운 것이 아니고 더러운 것이라고 하시면서 사랑으로 상담해 주셨어요.

그 후 생각을 바꾸니 편히 자고 소리도 지르지 않게 됐어요. 예전엔 자다가 무서운 꿈을 꾸면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치는 바람에 엄마가 많이 힘들셨거든요. 앞으로 저는 치료하고 응답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AUGUST

Programming Guide

주요프로그램 안내!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십자가의 도 2-6
- 보배중의 보배는 믿음 2
- 신앙생활 쉽게하기 1-2
- 성경적 결혼관 1-2
- 지옥 11-15 - 전도 1-2

GCN TV 설교

- 이수진 목사의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1-4'
- 정구영 목사의 '십자가의 도 9-12'
- 이미영 목사의 '노력하는 삶'

찬양 프로그램

- GCN 파워프레이즈 1-7
- 축복잔치 1-2

GCN 특선명화

- 나사렛 예수 3부 / 성의

24시간 연중무휴 위성, 인터넷, 인터넷TV 방송 및 A/S 문의 1577-2073

“북미 지교회 연합 수련회, 행복했어요”

지난 7월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간 이희선 목사(만민중앙교회 부목사)를 강사로 ‘북미 지교회 연합 수련회’가 캐나다 캘거리 빅토리 바이블 콜리지에서 열렸다. ‘영(요 4:24)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수련회는 교육 및 북미 지역 비전 발표와 체육대회, 캠프파이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캐나다의 캘거리, 밴쿠버, 애드먼턴, 토론토, 미국의 LA, 새크라멘토, 뉴욕, 워싱턴, 뉴저지, 시카고, 노스 캐롤라이나 등에서 참석했으며, 이들의 아름다운 연합은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특별히 7월 17일에는 북미선교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결단하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 가든그로브에서 캘리포니아 만민선교센터 입당예배를 드렸다.



성령으로 하나 된 감동의 시간

김춘호 목사 (캐나다 캘거리만민교회)

수련회는 북미 지역 지교회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며, 참석한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북미 곳곳에서 인터넷을 통해 성결 복음에 은혜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영적 힘과 능력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만민의 2세대들이 영어권 사역의 주역으로 나오며 북미 지역 사역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기회가 됐지요.

강사 이희선 목사님이 전해준 감동의 말씀과 기도에는 은혜가 넘쳤습니다. 또한 구름이 해를 가리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최적의 날씨 속에 모두가 하나 된 체육대회, 믿음과 사랑의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북미 지교회가 될 것을 다짐한 캠프파이어 등은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늘 보기 시간을 통해서는 영의 공간을 체험하며 천국 소망이 넘쳤지요.

뉴욕, 캘리포니아 및 캘거리 여선교회, 주일학교, 학생부 등에서 준비한 정성스런 특송은 참석자들에게 기쁨이 됐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온 권능팀(만민중앙교회 예능위원회 소속 예능팀)의 어린아이같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섬기는 모습은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됐으며, 그들의 특송에 열광적인 기립박수와 앵콜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요.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시며 순적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사랑으로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측 사진 맨 오른쪽부터 심 제임스 목사, 김항열 선교사, 김춘호 목사, 이재백 선교사, 전태문 목사

회개와 결단, 새로운 출발

심 제임스 목사 (미국 뉴욕만민인터내셔널교회)

수련회를 통해 저는 성도님들이 참마음을 이뤄 사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뉴욕과 북미에서 성결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담대히 전하기를 바랐습니다. 당회장 이재목 목사님께서 인도하신 ‘2006 뉴욕 연합대성회’를 통해 뿌려진 성결 복음의 열매를 온전히 맺기를 기도하며 준비했지요.

당회장님께서 인도하신 ‘2011 기관장 교육’과 ‘2012 지역장·조장·구역장 교육’을 토대로 이뤄진 강사 이희선 목사님 교육은 신속히 믿음의 반석을 지나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열정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 영의 공간을 통해 백야인 캘거리 밤하늘에 펼쳐진 이동하고 춤추는 별들과 갖가지 형상, 빛들을 봄으로 성도들은 믿음이 되고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했지요.

특히 선교사들이 모여 드린 새벽 기도회는 통회자복과 함께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불같은 기도로 온전히 하나님께 의뢰하지 못하고 행함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못했던 사역을 회개했지요. 더불어 성결 복음과 목자의 권능을 가지고 담대히 뉴욕, 북미, 나아가 세계를 향해 전진하는 사역자가 되고자 마음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사랑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이희선 목사님과 수련회를 위해 섬김으로 풍성한 사랑을 보이신 캘거리만민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만민선교센터 입당예배

김항열 선교사 (미국 캘리포니아 만민선교센터)

북미 지교회 연합 수련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감동을 안고 7월 17일, 이희선 목사님을 강사로 캘리포니아 만민선교센터 입당예배를 드렸습니다.

미 서부지역 선교사로 파송된 후 저는 선교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 주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곳 엘바인(IRVINE)에 정착할 수 있었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저는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집이 협소해 기도할 곳이 마땅치 않아 자동차 안이나 차고에 있는 보일러 옆 좁은 공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거룩한 성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늘 감사했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선교사로서 충만하게 기도하고 예배할 공간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당회장님께 기도를 부탁드렸더니 기도해 주신 대로 임대료가 비싼 최적의 장소를 절반도 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할 수 있었지요.

성결 복음을 전하다 보니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들은 한결 같이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고 생명력이 넘친다.”고 고백했지요. 이제 성결 복음의 전진기지로 굳건히 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당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복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70-8764-3000, 010-7703-42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림동 118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197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사령만민교회 충북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랑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전사거리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920-4512, 010-3343-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영로 28번지 중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1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강남지성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0-5 ☎02)556-8517~8, 010-7223-2073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 3동 188-26 ☎02)995-9951, 011-1717-1217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김천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367-4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3330-3172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031)635-9103, 010-2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2251-3149